인간과기억아카이브

(2016)년 5월 12일 일기

이름: 김 은 성 이메일:

나이: 29 살 학년 거주지역: 인천시 계양구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 2013 ☐ 2014 ☐ 2015 ☑ 처음참여

제목 : 그림책 모임 "엄동설"

길벗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모임이다. 엄마들이 모여 그림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오늘은 "깊은 밤 부엌에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두권을 읽었다. 보통은 8명정도 참여를 하는데 e는은 5명이 참여하여 나눔을 하였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책으로 난해한 그림책이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야지... 그런데 그림은 참으로 섬세하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림책이 다른게 보이기 시작한다. 난해했던 내용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고 그림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려진 그림으로 바뀌어갔다. 처음 난해했던 그림책은 의미있는 그림책으로 바뀌어졌다. 그림책을 읽는 모임을 통한 그림책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하는 단점이 보였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고쳐야 할 점이 많아 보였다. 그런 내용을 보니 건강한 부모되기와 그림책모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책을 혼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눔을 한 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다. 그림책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이 모임을 통해 지역에 독서문화의 바람이 더 커질것이라는 바람도 갖여본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컨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컨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